

20181129 빈정모임

일시: 20181129 19:00

장소: 레드박스

참석: 준, 수수, 오디, 우더, 인정, 알토, 사, 서원, 지음

[지난회의록](#)

[정관초안](#)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훑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포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5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6장, 7장, 8장, 9장 (들)

--- 정관초안 1차 마무리 ---

11월 3회차 : 상임활동가와 검토 (레드박스)

~~12월 : 조합원과 함께 완성된 정관 검토 (모임 전까지 1차 피드백과 의견 달아오기) (모두들)~~

~~4월 : 빈고 활동가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2주-1달?)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1. 빈고와 빈정의 소통의 문제

1.1. 빈정모임에서 나오는 빈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는 구성원들이 있다. 그래서 빈고 상임활동가들과 빈정 멤버들이 다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기를 요청하였다.

1.1.1. 정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운영회의나 상임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긍정, 부정, 방관?)

1.1.1.1. 지난 총회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내용이지만 지난 총회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1.1.2. '정관을 안 원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인데, (빈정이라는 모임이 탐탁지 않은것이냐?)

1.1.1.3. 상임: 모든 멤버들이 공유하는 생각인가요?

1.1.1.4. 공통된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인 것 같다.

1.1.1.5. 상임: 메세지가 없었다. 모임은 열심히 하셨으니깐..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타임라인은 어떠냐 하면.. 총회에서

정관모임을 한다, 라고 하고 총회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회가 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결정하는 자리이다. (결정하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정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필요성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자고 한 것. 그거 자체는 의의가 있는거니까 하기로 했다. 빈고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해서 교육을 요청했고 상임에게. 빈정모임을 당연히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거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메신저는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왔는데 솔직히 이게 상임에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았다. 상임한테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여론을 파악하려나 보다 생각했고. 제 타임라인은 이렇거든요. 메시지가 없었다. 정관이라고 한 건 모임이 있었는데 규칙을 만들어보자 이런거잖아요. 이런 규칙을 만들어와서 던져놓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수집을 해서 만들어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계속 없으니까 저는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물론 조합원이지만) 활동가들인거잖아요. 활동가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정관이 있으면 좋겠는지 있으면 뭐가 정해졌으면 좋겠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는지 에 대해서 물어보는, 소통하는 작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왔다고 생각해요.

1.1.1.6. 설문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 자체가 커서 무슨 말이든 쓸 수 있었다.

1.1.1.7. 상임:저도 쓰고 싶었어요. (왜 안 쓰셨어요.) 쓰기가...

1.1.1.8. 메신저 닳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상호간에, 상임들 입장에선 이 모임이 월원하는지 모르겠다이고 저희를 더 부른다거나 하지 않은 거고 저희도 여지껏 상임들 생각을 몰랐는데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책망하기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1.1.1.9. 하나 이야기하자면 빈고 정관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데서 뭔가를 정하는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른데. 상임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빈고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총회 준비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된다가나 지금까지 일을 반영해서 정관을 만들자는 얘기가 많았고. 모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자 보다, 기존 규칙을 가시화하고 정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1.1.10. 그래서 상임들의 의견의 필요한 시점에서 중간 전달자에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1.1.1.11. 충분하지 않았나봐요.

1.1.1.12. 일단 만났으니... 그간 소통이 잘 안되었다.

1.1.2. 빈정 모임의 요구 (설문조사, 피드백, 홍보, 정관내용에 대한 도움)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빈약했다.

1.1.2.1. 운영회의 입장에서 이쪽에 타임라인이 비어있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정관모임이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을 초반에 들었다. 그래서 정관모임이 공동체 방문해서 회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중략) 정관모임의 소통을 위한 설문조사나 피드백, 홍보, 내용에 대한 도움을 상임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을 계속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임이 탐탁치 않은 거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었던 것. 아까 전에 지음이 설문 답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했잖아요. 왜 못 썼는지 궁금하다. 방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어떤 애긴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1.1.2.2. 상임: 정관을 정리...지금까지 안했던거는.....못한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되고. 그런건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 1.1.2.3. 그런 큰 질문을 만든 이유는 이렇다. 빈고라는 단체에 정관이 생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답이 없었다. 그래서 빈고 정관을 하면서 정관모임으로서 받은 피드백은 무관심과 정관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 두가지 정도였다.
- 1.1.2.4. 상임: 정관 모임을 탐탁치 않아한다기 보다는 정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공유하고 있는거 같아요.
- 1.1.2.5. 없어도 잘하는데 귀찮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 1.1.2.6. 그런 말들도 써주기를 바란건데...
- 1.1.2.7. 상임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이유로 불안감도 있었다. 정관모임이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불안도 있고 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관을 만드는 게 우려가 엄청 되면, 우려를 표시해서 아예 만들지 말든지, 우려가 되는 방향을 이야기해줘서 그 방향으로 안가도록 한다든지 하는게 되어야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대신 10월 말에 11월 초까지 정관이 나와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빈정은 4월부터 어떤 호흡으로 진행할지 계속 공유해왔는데,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다른 피드백은 없이 급한 진행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 1.1.2.8. 상임: 상임활동가들이나 운영활동가의 일부가 정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인거잖아요. 여기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거죠.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고 부정할 수 없는거 아닌가.. (정관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맞는 지 모르겠어요.
- 1.1.2.9. 의사를 밝혀야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 1.1.2.10. 상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려야 있었는데, (정관 만드는 걸) 지금까지 힘들어서 안했는데, 하신다고 하니 힘들 것 같은데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한건 사실이에요. 쉬운 건 아닌데, 일정 자체도.. 초반에 잡았던 일정이 비현실적인 건 아닌데 뻑세다. 진행이 될까? 했는데 진행이 된거고, 그건 그거고, 총회 일정으로 역산해서 나온 일정이 있으니까 그 두 계획이 충돌한거다. '4월에 11월까지 나와야할거다' 이렇게 연초에 피드백하긴 어렵다.
- 1.1.2.11. 11월 말까지 나온다고 치면 운영회의는 이거를 가지고 조합원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한건지, 빈정에 맡기려고 한건지?
- 1.1.2.12. 상임: 정관 초안이 나오면 당연히 안건에 붙이는 거죠. 정관쯤 되면 설명회도 좀 더 해야될거고.
- 1.1.2.13. 상임: 지금까지 모임을 해 오셨는데 이런 그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엄청난 노동이죠. 즐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의견을 계속 들어야하고. 정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설득하던가, 일부를 버리던가도 선택해야 한다. 혹은 이번에 일부하고 내년엔 더 할 수도 있다. 정관모임에 여쭙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래서 결국 정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 지이다. 예를 들면 '빈고의 업무 메뉴얼이 필요하다', 상임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안내가 제대로 되면 좋겠다', '빈고가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홍보가 어렵다'거나 그런데 뭐 이런 필요는 제가 알겠거든요? 아무튼. 정관 초안 작성한 걸 봤는데 사실 정관이 적극적인건 아니에요 사실. 정관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1.1.2.14. 어려움을 좀더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1.1.2.15. 상임: ‘상임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뭔가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빈고의 활동은 지금까지 정관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하고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관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정관 자체를 만드는게 좋아서 그런건지 정관이 없으면 활동이 안 되서 그러신건지. 그런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상임 역할은 사실 그런거잖아요. 조합원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하는 역할인거고. 뭘 하고 싶으신지를. 예를 들어 홍보라면 이번에 행사하면서 리플렛 정도 만드게 올해의 성과라면 성과고.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몇가지 활동은 있었는데, 정관을 통해서 하고싶은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 1.1.2.16. 그런데 사실 그거 저희가 4월에 해서 올렸거든요. 몇번 올렸는데. 보셔도 모를 수 있죠. 정관이라는게 워낙 두루뭉실하니까.
- 1.1.2.17. 상임: 기억이 잘..
- 1.1.2.18.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보다도 우려되는게 뭐였는지를 듣고 싶거든요. 여지껏 안 만든데는 어려움이 많아서 안 만든게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렵겠다 어려운 일 하시네 계속 어려움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웠던 거고, 하는 걸 보거나 생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가 어려웠던건지 전달이 되면 좀 더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관모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초안이 나왔으니까 좀 더 뒤로 미루면 좋겠고 상임의 경험이나 생각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 1.1.2.19. 정관이 없어서 할 수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 1.1.2.20. 상임: 정관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뭐 전황..? 모르겠어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 1.1.2.21. 어려웠던 건?
- 1.1.2.22. 상임: 일단 정관자체 만드는게 어려운 일. 이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정합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 보통 협동조합 정관에서 대충 베껴쓰거나 안하고 넘어가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다가 기껏 한게 선언문 쓴게 다고, 그정도면 되나 생각을 하고 더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정관에 조직이 들어가는데, 우리 조직은 매년 변해왔기 때문에 애매, 조합원 대장도 매년 바껴왔고
- 1.1.2.23. 정관은 매년 총회에서 바뀔 수 있다.
- 1.1.2.24. 상임: 2/3의 동의가 필요
- 1.1.2.25. 비법적 조직이라.
- 1.1.2.26. 상임: 정관을 변경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건 사실이에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 1.1.2.27.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정관을 우리한테 맞춰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느껴졌거든요. 제가 정관을 필요하다 느낀 건 일하는 활동가들이 활동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고 원래 하던 사람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데. 어디서 찾을지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럼 정관으로 딱 빈고에 필요한걸 명문화하면 우려하는 쪽으로 안 가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1.1.2.28. 저도 정관의 필요성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살면서 첫 총회가 빈고총회였는데 다른 총회 겪으신 분들이 빈고 총회에서 의사결정, 진행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서 ‘보통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하면 ‘아 그렇구나’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단체경험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임의로 하기 보다는 빈고만의 총회 진행방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빈고가 다른 활동 경험이 있거나 하면 조직체계에 대해 정관을

모르더라도 감으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빈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이 조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배우는게 사실 경험으로 배우기엔 너무 어려울 수 있는거죠. 경험의 갭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빈고 정관을 규칙이라는 생각보단 기존에 만들어간 것들의 정리?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총회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걸 규칙으로 본다면 제대로 안 바꾸면 악법을 따라야하는 거라고 한다면 골치아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도 뭘 하고싶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그럴 때 정관을 보고 설명회를 듣는다거나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1.1.2.29. 빈고에 대한 이해 틀을 가지는게 어려가지가 있겠지만, 정관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거 같고. 저도 사실 선언문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형식적 틀이나 체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가치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이해가 아닌가. 가치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 돈을 모으고 어디에 쓰고 돈을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가능성 반자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빈고라는 조합에서 함께 활동하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긴 했는데. 정관 필요성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접근성이더라구요. '새로운 사람이 빈고에 대한 이해 처음 오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필요한데. 이걸 정관 형식으로 만들어낼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1.1.2.30. 한가지 방식일 필요는 없잖아요. 선언문도 있고 정관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

1.1.2.31. 상임: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정관이여야하는가? 정관이여야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거죠. 같이 공부하고 쌓아가는거로 나오는 결과물이 정관이 아닌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1.1.2.32. '정관이 아닌 결과물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거 같은데, 왜인가요?

1.1.2.33. 상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 빈정과 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온건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안이하게 생각한것도 있는거 같아요. 손대기 시작하면 진짜 열심히 일해야하거든요. 시작해보자는 자신이 없었어요. 실무를 해보니깐, 상황적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들이 늘 발생을 하고, 규정하는 순간 놓치는게 많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명확한 근거를 대기는 힘들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야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다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하는건가? 매번 발생하는 가치판단의 문제, 곤혹스러운 문제들... 개인 이용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만약 정관이라는 변경하기 더 힘들 형식의 틀이 있다면, 조금더 형식적인 딱딱한 틀을 가져갔을 때, 이런 틀을 즉각적으로 논의하고 해당조합원 혹은 다음 조합원에게 판단의 근거로 이용활동이든 출자든, 실무적인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거죠.

1.1.2.34. 저는 이것도 정관을 잘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개인에 판단의 근거가 있다는 건데, 이를 사람마다 달라지는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이를 활동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공유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해주면 좀 더 널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2.35. 저는 정관이라고 하지만 이를 만들때 정관을 만들때 달랠때, 쓰면서 빈고 가이드북을 쓰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집약되어있다. 빈고의 유동성을 제약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다.

- 1.1.2.36.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상임과 다른 조합원들과 먼저 하고 정관 만드는 걸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빈고의 논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총회에서 의결된 거라면 정관을 만든다고 합의하고 실무를 하는게 정관모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총회 때 느꼈던 건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제명하냐 마냐만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게 있어서 정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총회에서 내비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만드는 거구나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 진행하면서도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어떤 피드백 없음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뭔가 끌고러왔던 게 있었는데 약간..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지금이라도 모이는 자리를 꾸려서 논의하는 게 나을지.
- 1.1.2.37.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1.1.2.38. 원가..나온 정관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총회 경험이 없어서리.. 논의가 안된다면,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 1.1.2.39. 이 논의를 다음 총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나요? 왜 총회를 이야기하냐면,..(안건이야 올리면 되죠..) 총회 너무 논의가 안되서 믿을 수가...
- 1.1.2.40. 상임: 사람이 4,50명이 되면 논의가 될 수없잖아요. 시간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이걸 물리적인 제약이고, 논의와 결정이 있으면, 논의를 그전에 다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있게 하는게 활동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총회에서는 결정을 해줘야하는거죠. 정관을 할건가 말건가. 선택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와서 의결을 부쳐서 하게 만드는게 활동가의 역할인거고, 조합원의 의견을 많이 담는게 총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수도 있지만 이정도면 찬반붙여서 2/3면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논의를 해서..
- 1.1.2.41. 역할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초안이 나온 상태이고, 여기서 마이너한 내용의 틀림같은건 상임과 체크를 해서 논의과정을 거칠건데 이걸 어떻게 할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정관모임에서 하는거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정관모임이 사람을 모아도 사람이 모일거라는 확신이 없고, 운영모임이나 대표,상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거고. 총준위에 빈정멤버들이 들어가는건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 1.1.2.42. 상임: 안건을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이 준비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하는거잖아요. 총준위에서 준비는 하지만 한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초안이 완성이 된건가요? (재검토를 아직 안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이걸로 정관을 통과시킬 자신이....? 잘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많이 해야할거 같고..
- 1.1.2.43. 어떤 부분이요? 구체적이길 바라시는거예요?
- 1.1.2.44. 상임: 사실 정관 하나하나가 다 논쟁점이잖아요. 보통은 첫번째 목적으로 싸우다가 뒤에는 너무 힘든데 대충 넘어갑시다 이라고 넘어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말로 하나하나 다 논쟁지점인데.
- 1.1.2.45. 예를 들어 이름, 공동체은행 빈고 아납니까?
- 1.1.2.46. 상임: 맞긴 맞는데.
- 1.1.2.47. 상임: 넣으려면 왜 영문명 한자명은 없나 이럴 수 있겠죠. 하나하나씩 총회자리에서 생으로 나오면 안된다 말이에요. (예상은 했는데...)그거에 대해서 총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생산적으로 된 적을 본 적이 없고.
- 1.1.2.48. 총회자리에서 정관 할지말지 할 수 없고 1조2조3조도 할 수 없다면 정관 논의를 어디서 하는게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1.1.2.49. 상임: 통과될 수 있는 무난한 안을 만들어야 겠죠. 형식이든, 정관이 사실 되게 건조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무난하기 때문에.
- 1.1.2.50. 형식에 대한 의견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아까 짚으신 부분은 정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물리적으로 총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정관을 가지고 더 길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게 낫겠다는 의견인지. 만약에 더 건조해야 총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면 건조하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논의가 총회에서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면.
- 1.1.2.51. 상임: 논의 자체가 예를 들면 정관을 내놓으면 방어하는 논리가 다 있어야하잖아요. 가능한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걸 검토했는데 이런이유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가. 적어도 방어가 될 정도는 되어야할텐데. 사실...저만해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총회에서 물어보고 싶을거 같은데. 오히려 저는 건조하기 보다 재미있는건 괜찮은데... 간결하게?
- 1.1.2.52. 총회에서 정관을 논의할 시간이 어느정도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 1.1.2.53. 상임: 많이 잡아야죠 정관이라면.
- 1.1.2.54. 상임: 구체적으로.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할거고 총회에서 질문 수를 조정해야 할 정도면 아예 따로 미리 논의자리를 갖고 가야할지도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 1.1.2.55. 논의 자리가 필요하죠
- 1.1.2.56. 논의자리의 크기라던가 어느정도의 홍보를 그런것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 1.1.2.57. 우리 목적이 정관을 통과시키는게 아니잖아요.
- 1.1.2.58. 상임: 정관 통과가 목적은 아니죠. 논의해야할게 너무 많다, 총회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물은건데 총회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내부를 통해 걸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동의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논쟁을 잡기시작하면 여기서도 갈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사실 실제로 사람이 이정도 모여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웬만하면 거를 수 있다, 이거의 몇배가 모여도 어느정도 다양성의 한계가 있으니 대충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안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 1.1.2.59. 상임활동가들과 이야기하고 정리해야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다 한거고 앞으로 더 보충할 게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 1.1.2.60. 앞으로 상임까지 포함해서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이거든요. 어느정도 안으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을건가 이런 걱정도 들고.
- 1.1.2.61.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번 총회에 완성을 못 하면 내년으로 넘겨도 된다. 아니면..
- 1.1.2.62. 상임: 올해 하나 넣어요 이름하고 목적만 넣고 내년에 결정하죠
- 1.1.2.63. 일년에 한조씩?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1.1.2.64. 상임: 어차피 형식을 고민해야 할거고 불필요한 것도 있어보여요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빼고 안내문이나 메뉴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 1.1.2.65. 그러면 메뉴얼을 또 만들어야 한다
- 1.1.2.66. 예를 들면 조합 취지 및 목적,
- 1.1.2.67. 아까부터 오고간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건데, 총회때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한가지 지점만 가지고 논의가 길어지면 안되니까 사전에 공론화 자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논쟁거리를 풀고 와야지 총회가 완만하게 진행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정 모임에서는 정관이 필요하나 아니냐에 대해서 부터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정관이 나왔으면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 1.2. 빈정모임을 하면서 빈고에 대해 공부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임활동가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거 같다.

1.2.1. 상임에게 물어보거나 정리해오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앞으로 빈정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2.1. 이번 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것인가, 내년까지 시간을 두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칠 것인가.

2.1.1. 정관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1.2.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반대가 많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통과시키겠다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하고요. 그게 안되면 미리 찾아가서 조정을 한다음에 통과시킨다던가 해야하는거고.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리적으로야..총회하면 안건 하나가 길어질 수 있는건고 예상하기 어려울수있는건데.. 회의가 세 시간 하는지. 두 시간 하려고 하는지...

2.1.3. 상임: 빈고가 해왔던 총회 전의 절차상 경험으로 봤을때, 전체회의가 있거든요.

2.1.4. 상임: 적어도 전체회의에 왔던 활동가들은 '통과하자'가 되어야해요.

2.1.5. 상임: 그래서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져가서 논의에 붙이고 논쟁지점들을 정리해갈 수 있지 않을까. 총회때 간결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틀을 만들 수있을거 같아요.

2.1.6. 전체 회의 전에. 총회준비 스케줄이 있잖아요. 운영회의 안이 있고, 그 모임이 1박 2일 이고, 전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런 스케줄에 포함을 해도 되고 논의할게 너무 많으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겠죠.

2.1.7. 빈정 모임 해오면서 느낀 점들이 주목이라던지 관심 그런게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전체회의라는 기회? 창구를 바탕으로 정관도 같이 논의 할 수있지 않을까 싶어요. 별도로 마련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대단위 공동체가 없어서 모든 공동체를 다니는건 힘들고. 전체회의에서는 대부분 활동가들이 오니까 그게 좋을 기회 같아요.

2.1.8. 상임: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빈고에 필요한 일을 내가 한다.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게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관을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겠다.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쁜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반성폭력 관련 정관이라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라고 생각하면 넣어야죠. 그걸 넣고 어떻게든 넣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예상되는 반대와 2/3의 찬성을 통해서 다시는 안바뀌게... 그러기 위해서는 정관 바꾸는 기준을 높여야하는데, 그런게 없으면 굳이 이 힘들 작업을...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관철 시키자 이런게 각자 있으면 좋을거 같고. 그게 아니면 정관 혼자서 다 만들어요. 협동조합 정관 가져와서 그거 통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게 만든건 아무도 안보고 아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정관은 하다못해 다수결로도 못 바꾸게 하는거잖아요. 예를 들면 반성폭력 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과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임에서는 따라야한다고 규약에 넣고 싶은거잖아요. 이런건 모임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다수결로 할 수있으면 왜 정관으로 해요. 총회에서 다수결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게 있어야 이 힘든 노동을 하는건지.. 이런것에 관해서 굳이 싸우지 않을수도 있어요. 내가 싸운데가 많은데 여기에 와서까지.. 그러면 정관 안만들고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게 아니잖아요. 저라면.. 예를 들면 빈고가 은행인데 하다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도 좀 자본의 이익을 취해도 되는게 아니야? 출자자에게 배당도 더 하고 우리도 자본 좀 축적하고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조합원에게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때도 이거는 바꿀수없다는 하는 기준이 필요하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날 수도 있지만. 이걸 원만해서 못 바꾸는거다 라는 게 있다면 그걸 넣어야 하는 거겠죠. 이 힘든 노동을 왜.. 빈고를 위해서?

- 2.1.9. 빈고를 위해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그런것 보다는 다들 답답함이 더 컸던거 같고. 빈고의 뭔가를 이해하는게 개인적인 친분이외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빈고의 시스템에 대해 넣고 싶은건 정관에 넣기는 힘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거 같고. 필요하니까 하고 있었어 이렇게 봉사의 느낌으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 2.1.10. 상임: 그걸 선명하게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거예요. 그 주장이 뭔지 저는 아직 못들었다는 거예요. 이 초안에 그런 주장이 하나도 없고. 통과 되자고 하면 통과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거 같아요? 물론 실무자들에게는 압박이 되는게 몇 가지 있어요.
- 2.1.11. 무척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관을 만들기로 한건,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거든요. 이 정관은 지금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필요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거고 그게 빈정은 주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포기할 수 없다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2.1.12. 상임: 그렇다면 되게 좋은건데 그럴잖아요. 빈고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빈고에 대해 잘 설명해야한다. 중요한건데 그거는 진짜 정관 말고도 충분히 할 수있는거고. 정관이 오히려 번거로운 작업이라는거예요. 각자 다 다양하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정관에 기반해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정확히 얘기했을 때 정관에 따르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가 빈고를 잘 설명하고 싶으면 잘 설명하는 글을 열심히 써서 뿌리면 되. 그리고 상임한테도 누가 오면 이걸 뿌려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굳이 안건을 올려서 총회 승인을 올려서 뿌릴 필요가 없다고요.
- 2.1.13. 그런데 빈고는 설명을 들어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와서 직접 본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런 문서를 따로 만들 순 있겠죠. 정관이라는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관에 이거저거 우려된다 해서 가능한 덜 우려되게 하는게 뭘까 했을 때 초안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 뭘 붙일지 얘기 해야겠죠.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관을 만드는 걸 반대하면 정관 만들지 말아야 하나 까지 생각했으니까
- 2.1.14. 지음 말이 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고 싶은 주장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정관에 넣으면 음. 어떻게 말로 만들지도 모르겠고 좀 더 싸워본다고 생각하면 더 할 수 있겠죠. 정관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는 따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총회 때 안건으로 올리려 했다면 좀 더 빠듯하게 진행해야 했는데.
- 2.1.15. 상임: 빈정모임의 구성원들 중에 온도 차가 있었잖아요. 정관이 어중간하게 나온게 있는거 같아요. 초안만 봤을때, 정관이 아니어도 상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화로 그려도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기운을 받았다면. 담아진다면 이야기 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려운 그런게 있어요.
- 2.1.16. 형평성 등 납득하기 힘들 것들, 주요 쟁점들, 고민한 부분들 그런것들은 빠져있고 무난한게 설명문처럼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때, 선언문이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죠.
- 2.1.17. 쟁점을 넣은 정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편안한 설명문으로 가거나 그렇게 조절이 될 것 같다.
- 2.1.18. 상임: 빈고가 정관이 없었지만, 활동하거나 결정할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가지는 활동가들의 합의이고, 회의 체계는 계속 바뀌어 왔으니까.

활동가들의 합의를 믿고 그대로 간다가 하나고 두번째는,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제안해서 하면 되는거고, 이런 식이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임을 길게 여러 차례.. 그냥 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임의 전횡을 막는 방법은 활동가를 하거나 상임을 같이 하면서 내부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래고 활동도 빈고 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성폭력 활동을 할거야 하면 운영활동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 토를 안달거 같아요.

- 2.1.19. 저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못했던게 제가 격었던 다른 단체의 총회나 논의과정을 대입해서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이렇게 쪽 말을 나눠보고 이 모임이 정관이라는 것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임이라는게 잡혔으면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거 같고. 한다니까 응원합니다라는 입장이라는걸 아니까 훨씬 더 편해지네요.
- 2.1.20.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는데 통과해도 될까요’ 라는 과정을 총회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과정이 하나 더 생겼네요. 깨달았습니다.
- 2.1.21. 상임: 정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들면 바꾸기 힘들거 같애’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요. 정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다음 총회때 논의하자는 그만큼 동의를 받고 간거죠 뭐.
- 2.1.22. 상임: 그런 의견이 이번에 또 나올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넘어가야죠.
- 2.1.23. 이것보다 더 큰 설득력은 일년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그런거 아닐까요.
- 2.1.24. 총회에 낼까 말까 보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각장 만들 때마다 본 것 말고는 다시 보면서 재 논의한 건 없잖아요. 중간중간 어투도 다르고 어려운 문장도 쉽게 바꿔야하고. 뭔가 쟁점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휴면 조합원을 제명할거냐 말거냐도 쟁점거리라고 보거든요. 쟁점은 쟁점 사항으로 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빈정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고 총회 자체 모임으로 가져가면 될거 같다.
- 2.1.25.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것 바탕으로 만족할 경우와 더 나아갈 경우와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 2.1.26. 저는 정관모임 처음 할 때와 하면서 바뀌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내서로써 더 크게 필요해서 정관을 시작했던거거든요. 계속드는 생각이 총회급에서 수정될 수 있는지는.. 그만큼 강력하게 빈고는 이거는 고정해서 가야해 라는건 크게는 없는거 같고. 안내서라고 하면 운영진 선에서 수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보일수있는 그정도가 저에게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 유동성을 해친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어서 느슨하게 쓰고 느슨하게 가면 1,2,3,4가 사라지고 선언문으로 가는거니까. 안내서로 가는게 구체적으로 갈 수 있을거 같다.
- 2.1.27.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기로 했던 3월의 저를 보고 싶고요. 원 생각으로 했냐 하면 빈고에게 뭔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거나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스탠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실망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갔던거는 정관이 필요하다고 보다는 고민이 확장되었던거 같아요. 빈고 정관에 대해 메시지를 담으려는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2.1.28. 다음 회의를 다른 곳으로 잡거나 해야할 거 같은 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비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2.1.29. 정관 모임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아수나로를 통해 보았던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 2.1.30. 정관에 대한 시선을 갖는데 혼란을 겪었어요.
- 2.1.31. 저는 설명문적인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용어 설명이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문 이상의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땅한 단어가... 정관모임이 가장 비슷하다고생각해서 참여를 했는데..좀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2.1.32. 상임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무엇인가요?

- 2.1.33. 상임: 탈퇴나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이 실체를 찾아가야하잖아요. 따지러 가야할곳이.. 말로는 온지곤지라고 하고선 거기에 없어. 그러면 곤란하니까 한군데로 정하는건데. 여기에 있으면 누군가는 여기에 있어야하는거죠. 소식 공유의 방법 이것도 엄청 부담되는거예요. 상근자가 이거로 공지를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뭔가를 할게 없어요. 총회한다고 몇명 모여서 결정했는데 난 몰랐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때 방어하기 위해서 붙여놨다는 사실 자체만 증명하면 끝나는 이런건데 이런걸 다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총회공지는 이렇게 해야겠지만....상당히 부담이 된다는거죠. 개별연락. 이거 다 해야한다는거잖아요 대면까지 해서 해야한다는건 상임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엄밀히 보면 그렇다는 의미로 하는거고. 예를 들면 상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이런거에 기준으로 해서 너 왜 공지를 안했어 이렇게 되야 징계를 할 수있는거거든요. 정관은 배제하고 제안하려고 하는거지 우리끼리 사이좋게 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살벌한 거거든요. 일을 안했을때 그 기준이 뭐냐 그런거잖아요. 이름도 빈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알아서 부름시다 그렇게하고 넘여가기도 했는데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빈고로 할지 빙고로 할지 그러지 말자 라고해서 여기에 넣는거거든요. 사업의 종류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거 아니면 못하는거고, 이거 아니면 못하는거고. 서로 배제하자고 싸우는거기 때문에 관계가 안좋을때 이거가지고 싸우죠.
- 2.1.34. 상임: 5조 1항 출자금을 관리한다는게 모인걸 한다는건지. 출자금을 관리한다는게 돈을 불린다는건지...어떤 의미인지..
- 2.1.35. 애매한 정관들도 많잖아요?
- 2.1.36. 상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관을 안 보잖아요. 사문화 되고. 정관과 다르게 몇 년동안 운영을 하다가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정관과 다르네? 그러면 정관을 바꾸자 그렇게.. 강제력과 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어렵죠...
- 2.1.37. 정관을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 2.1.38. 상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만들려면 잘 만들고 싶은데...
- 2.1.39. 정관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피드백과 기대를 들은거 같아요. 정관에 대한 욕구 중에 편한 길을 택하면 어떻게 있을지도 들었고 어려운길은 어떤건지 들어서 .. 잘들은거 같아요.
- 2.1.40.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모임이나 주제만 설정해서 모이자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2.2. 정관을 조합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소개할 것인가. (조합원들은 정관을 어떻게 이해할까)
- 2.2.1. 총회준비위는 어제 부터 시작을 했고,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2.1.1. 누가 참여할 것인가? 준, 우더
- 2.2.1.2. 총회때 어디까지 들고 갈거고 따로 만나서 할거나 그런거 논의할거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하는건 무리가 있을거 같고..
- 2.2.1.3. 총회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 2.2.1.4. 조합원에게 어떻게 미리 이야기할까
3. 정관 초안 내용 검토
- 3.1.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 3.1.1. 2장
- 3.1.1.1. 조합원의 의무
- 3.1.1.1.1. 의무사항의 범위가 과하거나 부족한가.
- 3.1.1.2. 조합원의 탈퇴
- 3.1.1.2.1. 탈퇴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안이한가.
- 3.1.1.3. 조합원의 제명
- 3.1.1.3.1. 전반적인 논의 필요.
- 3.1.2. 3장
- 3.1.2.1. 총회

3.1.2.1.1. 임시총회 부분에 대한 논의 필요.

3.1.2.2. 19조~ 21조의 활동가 구분과 설명이 적절한가.

3.1.3. 7장

3.1.3.1. 사업활동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충분한가.

3.1.4. 9장

3.1.4.1. 해산절차에 대한 절차와 안내가 과하거나 부족한가.

4. 다음모임

~~4.1. 12월 12일 저녁 7시 모두들~~

4.2. 12월 12일 저녁 7시 평집(가안)

5. 운영활동가방/뉴스레터에 공유할 내용

5.1.

5.2. 이번 빈정모임은 상임활동가와의 대화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레드박스'의 공간을 빌려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맛줄기로 유명한 레드복스의 차를 마시며 모임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상임활동가와 대화하며 빈정모임 구성원들은 소통의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빈정 모임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해주신 상임활동가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이야기 자리가 만들어져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